

“지금도 도의-만해스님 선풍이...”



◊ 문미다
파라산
문양이 일품
인 신홍사
극락보전.

◊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신
홍사에 조성된
통일대불. 신홍
사는 통일기원
의 도량으로 자
리잡고 있다.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설악산



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지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차르 이동한다지만 장수대 휴게소 바로 옆이라 안내관만 잘 갖춰져 있어도 한계사지는 그렇게 별다른 가을을 맞지 않을 것이라 느낌이 입맛을 즐겁게 할 뿐이다.

나라 최북단 보궁으로 남마다 법당이 비좁으리만치 많은 기도당이 찾아 영원의 향을 사르고 있다. 오늘날 설악산을 대표하는 사찰은 신홍사다. '신홍사 사력기'는 자장율사가 진흥왕 6년(652)에 향사사와 계조암 등

“한가위에 달인 눈이 허지에 이르러서야 녹는다”(동국여지승람).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히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종보문헌비고). 옛 사람들은 설악산이 그 (:름을 얻게 된 사연을 이렇게 적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를 굽어보며 금강산에 비견되는 절경으로 솟아 있는 설악산. 남한에서는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설악산(1708m)의 일석들은 가을 처장에 여념이 없다. 최고봉인 대청봉과 북쪽의 마동령, 미시령, 서쪽의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산역 골골마다 진홍의 단풍들이 시냇가로 터오르고 있다. 동으로 흘러드는 남대천이나 서쪽으로 내달리는 북천과 한계천의 물빛은 나뭇이 짙어가는 단풍이 투영되어 풍덩 빠져들고 싶은 충동까지 준다. 눈썹들에게 ‘절세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못하게 하는 설악산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겨 삶의 새로운 자양분을 주는 역할 만으로도 우리민족에게 더할없는 보물로 자리잡아 온지 오래다.

대 청봉에 올라 굽어보니
아.
온통 붉게 불타는 단풍
하늘바다 울긋불긋
갈고 싶더라.

이대로 탄식 감탄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
이왕 마음 내긴 김에
설악산을 봉채로
등승하여 걸어지고
내려왔다.

(중광, 1998. 10. 12)
일명 “절대승”으로 세상을 풍미하다
이제는 설악의 깊은 자락에 묻어 이름바
지 놓인(蠶)으로 고쳐버린 중광스님.
허리춤에 걸여지고 내려 오지 않고는 배
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설악산의 가을인
가. 백담사 계곡 20십리 길이 단풍객들의
발소리로 분주하니 귀담고 들어 앉은 암
자의 주인(蠶)인들 뉘게 불꽃지 않았
는가.

7차례 화마 겪어
설악산 백담사. 근대 민족정신의 선구
자이자 고찰한 수행의 표상이었던 만해
스님도 정신이 백담사에서 새로운 세기
의 꽃대처럼 나부르고 있다. 만해기념관
과 교육관이 문을 열고 해마다 만해시인
학교도 열리고 있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이 맥을 잇고 있다.

내설악의 첫 관문인 백담사는 7차례의
화재를 겪으며 자리를 옮기고 이름을 고
쳐부르며 지금의 자리에 정착한 사찰이다.
백담사의 전신은 한계사(寒溪寺)였다.
한계사는 자장스님이 647년에 지은
절인데 창건한지 50년만에 불타고 다시
중건됐다. 다시 중건된 한계사 역시 70년
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화재를 당했다
(785년). 이때부터 일곱번의 화마를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사백(寺額)을 이어 와

정조 7년(1783)부터 백담사로 불리게 된
다. 백담사란 이름에 뜻을 뜻하는 담자가
든 것도 거들되는 화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 전한다.

백담사의 전신이라 할 심원사 운흥사
영취사 등에 대한 사적은 현재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첫 이름인 한계사
터는 남아 있다. 용대리 삼거리에서 한계
령을 오르는 초입의 창수대 좌측 150여
미터 지점, 설악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
이 슬기하게 오가는 고갯길 옆에 한계사지

한계사지(강원도기념물 제50호)에는
주춧돌, 기단석, 3층석탑들이 전해지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의 화려한 조각 수법
을 비롯 고려대의 솜씨까지 다양하게 엿
보이는 것은 한계사가 여러차례 중건을
거쳤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외로운 한계사지
백담사를 거쳐 오세암과 적멸보궁 봉
정암으로 오르는 불자와 관광객의 발길
도 끊임이 없다. 무엇보다 봉정암은 우리

인임을 차례로 세웠다고 전한다. 향사사
(香城寺) 옛터는 지금의 신홍사 입구로
현재까지 단아한 3층석탑(보물제443호)
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향사사와 계조암 능인암은 후대에 모두
불타 없어졌고 의상스님이 효소왕 10년
(701)에 능인암터에 선정사(禪定寺)를
세웠으나 조선 인조 20년(1642)에 불타
다. 2년후에 영서, 연옥, 해원스님들이
선정사 아래 20리 지점에 다시 절을 지
어 신홍사로 불렀다.



◊ 만해스님의 정신을 현양하는 중심도량 백담사. 관광객들이 백담사 만해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 신라 선불교의 총중도량이었던 선림암지의 금당터.



◊ 한계령 초입에 위치한 한계사지는 백담사의 전신이다.

세 스님은 어느날 꿈에 신인(神人)을
만나 “이 터는 만년에 이르도록 삼재가
같이 침범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널리 불
법을 펼 수 있는 도량이 되리라”는 계시
를 받는다. 같은 날 세 스님이 동사에 꿈
에서 만난 신인이 절지한 곳에 세워진
신홍사는 1년정 분단 극복을 염원하는
통일대불을 완공해 통일염원 근본도량으
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속초와 서울에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세워 전방
의 사랑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의 스님들
이 신인을 만나 불법종포의 도량을 세우
고 지금의 스님들이 전법의 당간을 받들
고 있는 것이다.

불교를 도입한 도의선사의 부도(보물 제
439호)와 3층석탑(국보 제122호)가 남아
있는 진전사지와 3층석탑(보물 제444호),
석동(보물제 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
제446호) 부도(보물 제447호)가 남아 있
는 선림암지도 빼 놓을 수 없는 이 지역
의 불교 유산이다. 진전사지 인근에서는
지현스님이 진전사 복원 일력을 세우고
대웅전 전립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합심 용왕제 봉행

담사기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들 사지는 도의선사의 해회가 고스란
히 스며 있다. 특히 선림암지에서 1948년
에 출토된 신라동종은 이용해 월정사로
 옮겨졌다가 6·25전쟁때 소실되고 파편
만 남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고 있어 아
쉬움을 남긴다. 선림암지로 가는 길 옆의
현서분교 운동장 향연에 모셔진(1964년
교사와 학생들이 옮겨 놓았다) 서암사지
석불좌상과 3층석탑도 오랜 세월 방치되
었던 유물이다.

속초시가 해마다 벌이는 설악문화제는
올해로 33회를 넘기며 국내외 관광객들
에게 설악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설악문화제는 산신제, 용왕제 등
산과 바다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축제
지만 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 역
시 존중되고 있어 매년 제등생렬을 빠드
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속초시는 내년에 89관광엑스
포를 열 예정이어서 설악권의 불교를 보
다 효과적으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양
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 지역 사람들의
속재로 남아 있다.

글=임연태 기자(yllim@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jgo@buddhopia.com)

■ 양양군 지역문화제 알리기 앞장 초등생 문화유적 탐방 인기



◊ 양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진전사지 3층석탑 앞에서 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압송전탑과 음식점으로 사지의
면모가 손상되고 있는 잃어버린 진전
사지. 올 가을 매일 오전마다 찾는 버
스가 한대 있다.
양양군청 소속의 이 버스에 4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다. 사지에
도착한 어린 학생들은 교사리선에 수
첩과 연필을 들고 국보 제 122호인
진전사지3층석탑 앞으로 모인다. 군
청 학예연구사 전유길씨가 알아듣기
쉽게 탑의 명칭과 의미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 마디라도 농칠새라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양양군청(군수 오인택)이 작년부
터 운영하는 “우리지역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양군은 작년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
해 지역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7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
량과 점심을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
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며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것.

탐방지역은 진전사지와 선림암지. 오
신리 선사유적지, 법부리 고인돌을 기
본으로 하고 학교가 요청할 경우 다
른 곳도 탐방을 한다.
안내자로 나서고 있는 전유길 학예
연구사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
한 자부심을 나누는 기회가 없었던
탓인지 각계에서 대단한 관심을 보이
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올 가을 각급학교와 학부
모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
내 군부대가 협조할 경우 장병들에게
도 문화유적 탐방의 기회를 만들어
줄 생각이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이용, 전장에서 온 젊은이들에
게 양양의 문화유적을 알리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역 사람들의 의견
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용성스님 어록

세상 사람이 다만
죽전(目前)의 일만
알고
드래비 자기의 증래한
사건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죽어서 못보는 것은
그만두고 지금 살아서
그대가 그대를 보는가?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통사(0561-748-8815)